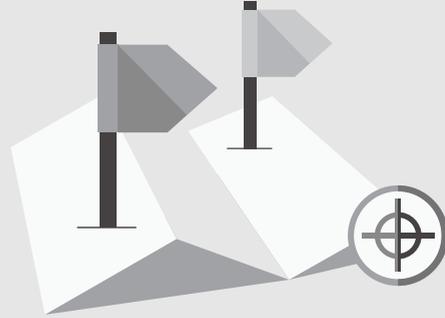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김은정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이윤경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남궁은하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

진화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에 대한 심층 파악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활용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1일~10월 22일이며, 전국 17개 사도의 801개 집계구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가족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2)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3)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0-63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에 게재된 원고들은 이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¹⁾



Social Perceptions of Age and Age Norms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아동, 청년, 노년기 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법, 정책, 제도 등의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 직장, 사회에서의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와 청년과 노인 차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기준은 12세 이하였고, 청년은 35세 이하, 노인은 70세 이상이였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기본법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고, 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노인의 연령기준은 일반적인 노인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65세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 형성과 구직, 승진 등의 경력개발에서 연령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노년기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명이 증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령 유연성과 연령 다양성이 확보되는 연령 통합적 사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연령’은 사람의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할 때 성별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이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누군가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연령’이다. 연령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과하기에는 개인의 생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제6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가 매우 크다. 연령에 따라 가족,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관계와 위치가 달라지고 경제활동, 정치적 태도와 문화적 경험, 사회적 정체성과 행동 양식까지도 바뀐다(김이선, 한신갑, 2014). 연령에 따른 역할, 태도, 특성은 나이에 따라 취득되거나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이를 연령규범이라고 한다. 연령규범(age norms)이란 연령에 적합한 행동이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으로, 특정한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생활양식 및 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며 반응이다(Settersten, 2003). 연령규범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기도 하고, 개념이 변화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연령규범이 없어지기도 한다. ‘결혼 적령기’라는 연령규범이 그 대표적 예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0대 초반으로 생각했으나 여성의 교육기간이 확대되고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결혼 적령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행동양식과 태도에 대한 사회의 규범적 인식은 연령으로 구분된 집단들에 대한 거시적 영향력이자 통제의 기반이 되며(Butler, 2005), 연령집단에 속한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중돈, 손의성, 2010; 임정숙, 정세미, 정순돌, 2019; 조성희, 김경미, 2016).

연령규범이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관념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연령주의(ageism)와 연령차별을 낳게 된다.

연령주의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Iverson, Larson, Solem, 2009). 연령주의는 가족, 사회에서 해당 연령집단의 다양한 기회를 차단하거나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인 연령주의의 사회적 부당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연령규범은 노인, 중년, 청년, 아동과 같이 생애 주기별로 나타난다. 즉, 아동기에는 성장과 학습, 청년기에는 경제활동 시작 및 새로운 가족 형성, 중년기에는 가족 유지 및 경제활동, 노년기에는 후속세대에게 삶의 지혜 전수 등의 발달 과업과 역할이 부여된다. 생애주기는 생애 주요 이벤트인 입학, 취업, 결혼, 퇴직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구분이 많이 활용된다. 특히 정책에서의 대상자 선정에서 연령은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교육기간이 연장되며 취업 개시 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는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기준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하며, 또한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인구고령화와 길어진 노후 등의 영향으로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애주기 중 정책적 주요 대상인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 연령규범, 연령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연령별 국민들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연령 통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생애주기 구분의 기준 연령에 대한 인식

생애주기의 구분은 구분 목적에 따라 단계의 수와 기준을 달리한다. 에릭슨은 생애주기를 8단계로 유형화하여 영아기-유아기-아동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초기-중장년기-노년기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 방안(2010)’은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유럽연합(EU)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정책 분석틀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0~17세, 18~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2010)’에서는 태아기, 영유아기(0~6세),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시내, 박준오, 류광현, 201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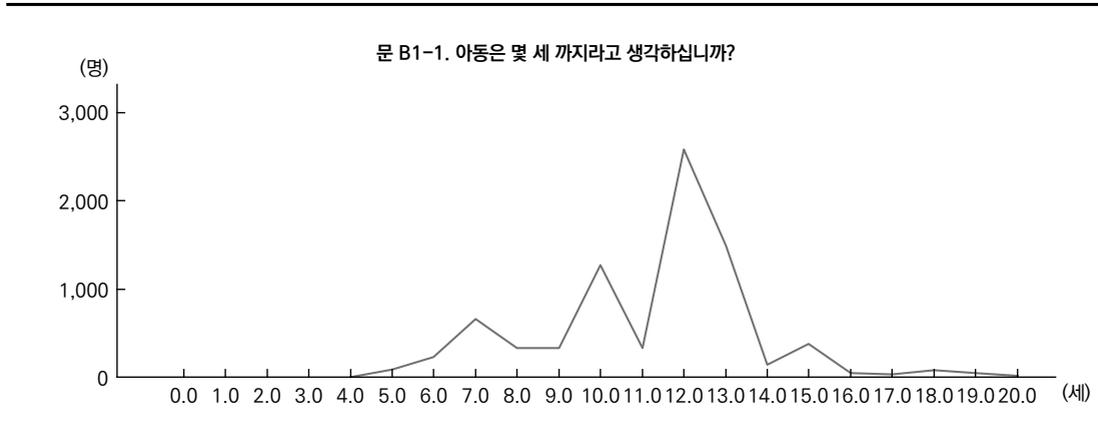
정책의 주요 대상인 아동, 청년, 노인을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국민들의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연령기준은 생애주기별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며, 그 연령의 기준/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또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아동과 노인은 보호, 지

원 측면에서 타 연령집단에 비해 취약한 계층으로 과거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청년은 최근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 청년,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그림 1>~<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의 연령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상자 선정 범위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에서는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1. 2. 10. 발췌). 즉, 아동, 청소년, 청년의 법적 연령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과 청년이 중복 제시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동과 청년의 연령기준 또한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 상한선에서 최빈 응답은 12세로 응답자의 32.6%가 이 연령을 꼽았으며, 13세로 응답한 비율은 18.5%, 10세로 응답한 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아동의 시기는 대부분 동일한 학령기로 구분하며 아동기의 연령기준은 학령기의 단계에 따라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국민들이 인식하는 ‘아동’은 초등 학교 시기까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동'의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생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새로 분석한 결과임.

아동으로 응답한 연령 구간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9세 미만이 20.8%, 10~11세가 20.1%, 12~13세가 50.3%, 14~20세가 8.7%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1.1세였다. 아동의 연령기준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아동'의 명칭에서 학령기를 연상하거나 또는 아

동수당과 같은 정책의 대상자 기준을 고려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아동'에 대한 연령 상한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 상한 기준 연령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에서는 9세 이하로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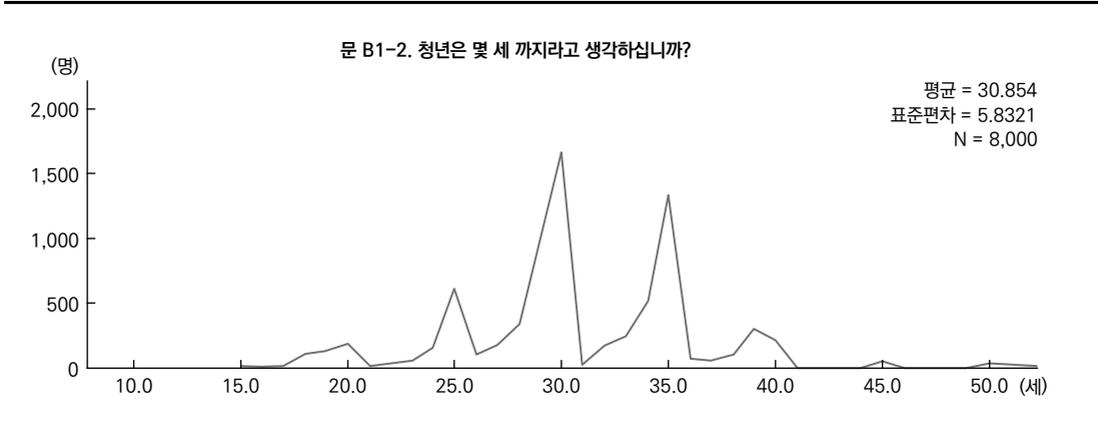
표 1. 응답자의 연령별 '아동'의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생각

(단위: %)

특성	0~9	10~11	12~13	14~20	평균 (세)	표준편차	1순위 최빈값 (세)	2순위 최빈값 (세)	(명)
전체	20.8	20.1	50.3	8.7	11.1	2.52	12	13	(8,000)
연령									
19~29세	22.7	20.3	49.0	8.0	11.0	2.56	12	13	(1,360)
30~39세	22.9	19.8	51.0	6.3	11.0	2.57	12	13	(1,279)
40~49세	20.9	18.5	52.1	8.5	11.2	2.49	12	13	(1,533)
50~59세	20.3	20.5	49.6	9.6	11.2	2.52	12	13	(1,590)
60~69세	18.4	20.3	52.1	9.2	11.2	2.38	12	13	(1,204)
70~79세	20.2	21.9	47.0	10.8	11.2	2.58	12	10	(675)
80세 이상	17.0	22.0	49.4	11.6	11.4	2.58	12	10	(360)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 일부

그림 2. '청년'의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생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새로 분석한 결과임.

답한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70세 이후에서는 14~20세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아동으로 생각하는 연령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령 상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빈값은 30세와 35세로 20.8%, 16.8%로 나타나며, 29세로

응답한 비율은 13.8%로 나타났다. 35세까지의 누적 비율은 88.5%이며, 39세까지는 95.3%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상당수가 20대와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응답자의 연령별 청년으로 인식하는 연령 상한기준은 최빈값에서 대부분 30세 또는 35세로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에

표 2. 응답자의 연령별 '청년'의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생각

(단위: %)

특성	15~19	20~29	30~39	40 이상	평균 (세)	표준편차	1순위 최빈값 (세)	2순위 최빈값 (세)	(명)
전체	3.5	35.7	56.4	4.4	30.8	5.79	30	35	(8,000)
연령									
19~29세	3.4	34.6	58.8	3.3	30.8	5.36	30	35	(1,360)
30~39세	3.8	32.8	58.7	4.7	31.1	5.65	30	35	(1,279)
40~49세	4.9	35.2	55.9	4.0	30.7	6.03	30	35	(1,533)
50~59세	3.7	36.0	55.1	5.2	30.8	5.83	30	35	(1,590)
60~69세	2.4	39.4	54.1	4.1	30.6	5.98	30	35	(1,204)
70~79세	2.9	34.8	56.7	5.5	31.0	6.01	30	35	(675)
80세 이상	1.2	39.0	54.0	5.8	30.9	5.63	30	29	(360)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2> 일부

기대되는 역할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 새로운 가족 형성 등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자립’하는 것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입직 연령이 늦어지고, 또한 초혼 연령도 늦어짐에 따라 국민들은 30대까지를 청년의 시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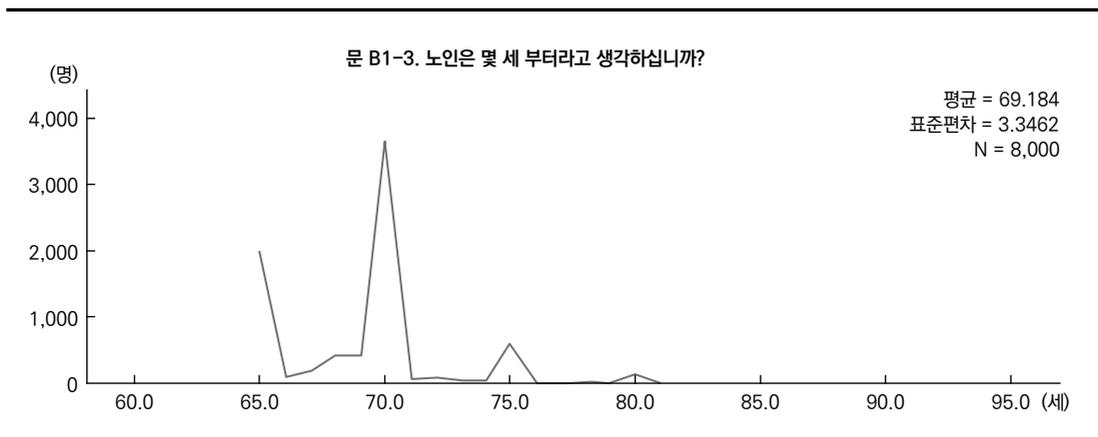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아동과 청년의 상한 연령기준을 근거로 국민이 생각하는 생애주기를 분류할 경우 아동은 대략 12세(초등학교 졸업), 청년은 35세까지로 구분되므로, 0~12세는 아동기, 13~19세는 청소년기, 20세~35세는 청년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김형주, 연보라, 유선희(2019)에서 아동 상한 연령을 10.9세, 청소년을 18.4세, 청년을 32.3세로 한 것과 유사한 분류로 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기준은 국민들의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정의 기준 연령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이는 현재와 같이 아동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기준과 차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다.

생애주기를 구분할 때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점이 주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노인의 연령기준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그 주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경로우대제도와 관련하여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동이나 청년의 경우 관련 법에서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그림 3. ‘노인’의 연령 하한 기준에 대한 생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새로 분석한 결과임.

표 3. 응답자의 연령별 '노인'의 연령 하한 기준에 대한 생각

(단위: %)

특성	65~69	70~74	75이상	평균 (세)	표준편차	1순위 최빈값 (세)	2순위 최빈값 (세)	(명)
전체	40.0	49.2	10.8	69.2	3.36	70	65	(8,000)
연령								
19~29세	49.3	43.0	7.7	68.5	3.20	70	65	(1,360)
30~39세	42.1	47.3	10.6	69.1	3.40	70	65	(1,279)
40~49세	41.3	47.6	11.1	69.2	3.30	70	65	(1,533)
50~59세	36.2	53.0	10.8	69.4	3.24	70	65	(1,590)
60~69세	36.7	52.2	11.2	69.4	3.37	70	65	(1,204)
70~79세	33.6	52.0	14.4	69.6	3.50	70	65	(675)
80세 이상	31.4	54.0	14.6	69.9	3.82	70	65	(360)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3> 일부

'노인'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구체적 정책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에서 수급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1. 2. 10. 발췌).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년기,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에 대해서는 최빈 응답이 70세로 46.1%가 응답했으며, 그다음이 65세로 25.2%가 응답했다.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의 평균은 69.2세로 나타났다.

65~69세로 응답한 비율은 40.0%, 70~74세는 49.2%, 75세 이상은 10.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 노인이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나타났다. 19~29세 연령에서는 평균 68.5세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이 되는 연령기준을 높게 생각하여 80세 이상에서는 69.9세로 나타났다. 70세 이후 응답자의 경우 7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대에서는 14.4%, 80대 이상에서는 14.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2011년에 67.6세, 2017년에는 68.5세로 나타나며, 응답자의 연령별로도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 시작 지점에 대한 연령기준은 높다. 2017년 조사에서 50대 미만은 67.1세로 응답한 반면, 70대는 69.0세, 80대 이상에서는 69.4세로 응답하고 있다(권혁창 외, 2012; 송현주 외, 2018). 이와 같은 경향은 지은정(2017), 김지범 외(2018)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도 나타난다.

연령기준은 생애주기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용이하여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생애주기 연령기준을 정책 대상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3. 연령구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

가. 연령구범에 대한 인식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생애주기와 가족 생활주기도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가족 단위 공동체, 농업 사회 중심의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연령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던 대가족의 삶과는 달리 현재는 1인 가구의 증가, 미혼자의 증가, 직업의 다양화, 개인의 욕구가 강조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연령별로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족, 사회에서 기대되는 연령구범에 대한 국민의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연령구범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구범을 나타내는 문항을 구성하여 그에 대한 동의(‘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우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따른 결혼, 자녀 출산 등의 가족 형성과 확대에 대한 규범에 동의하는 정도는 9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생애경력개발에 대한 규범에 동의하는 정도 또한 86.3%로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진학과 취업, 승진 등을 하는 것에 대한 규범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연령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85.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74.1%

로 나타났다. 오히려 노년기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라는 데 대해서는 49.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범은 살아가면서 쌓아 온 것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숙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노년기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연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합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청년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구범으로서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에 대해 국민의 8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을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81.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규범에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에 따른 가족 형성과 확대에 대한 규범이었으며, 청년에 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역할, 진로와 생애경력에 대한 역할, 직장에서의 연령대별 역할에 대한 기대의 동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년기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동의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구범에 대한 생각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른 결혼, 출산 등의 발달과업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높으며, 19~29세의 경우는 84.3%만이 동의하는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표 4. 연령규범 문항별 동의¹⁾ 정도

(단위: %)

특성	비동의	동의		동의	그런 편이다		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9.2	0.5	8.7	90.8	64.8	26.0	100.0(8,000)
2)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3.7	0.6	13.1	86.3	54.1	32.2	100.0(8,000)
3) 직장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6	0.7	13.9	85.4	62.8	22.6	100.0(8,000)
4) 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기술이나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26.0	1.4	24.6	74.1	61.0	13.1	100.0(8,000)
5)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이다	49.9	7.0	42.9	50.1	41.3	8.8	100.0(8,000)
6)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11.5	0.7	10.8	88.5	56.6	31.9	100.0(8,000)
7) 젊을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18.1	1.4	16.7	81.9	60.7	21.2	100.0(8,000)

주: 1) 동의는 각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4>.

9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생각의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른 진학, 취업, 승진 등의 생애경력 과업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직장 내 연령에 따른 역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도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노년 세대의 역할이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50대 미만에 비해 50대 이후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습득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데 대한 동의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노년 세대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세대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현재 노년 기인 세대와 그 외 세대 간의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청년 세대가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년기에 고생스러운 생활을 의미있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기인 20~30대가 75~76%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70~80대의 동의 수준은 8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연령대별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가족, 직장, 사회에서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갖는다. 결혼 적령기를 중요시하는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젊어서의 고생이나 희

표 5. 응답자의 연령별 연령규범 동의¹⁾ 정도

(단위: %)

특성 ²⁾	1	2	3	4	5	6	7
전체	90.8	86.3	85.4	74.1	50.1	88.5	81.9
연령							
19~29세	84.3	84.8	85.9	73.7	39.2	87.1	75.0
30~39세	86.5	85.5	84.7	73.3	39.3	87.6	76.2
40~49세	91.3	85.8	84.8	70.3	39.9	89.6	82.6
50~59세	94.0	86.3	85.0	75.0	43.1	89.2	84.8
60~69세	94.2	88.5	85.1	75.5	42.1	89.7	85.9
70~79세	94.7	87.8	89.2	77.6	43.8	88.7	87.7
80세 이상	95.5	87.5	84.4	78.8	46.6	85.3	87.7

주: 1) 동의는 각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2) 1~7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3. 직장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기술이나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5.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이다. 6.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7. 젊을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5>~<표 6-11> 재구성.

생을 당연시하는 노년 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감, 노년 세대의 역할에 대한 연령대별 기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세대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을 논할 때는 나이가 많아서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사람(청년)에 대해서도 차별 인식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직장, 사회, 가족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젊은 사람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동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고용 및 직장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대해 78.5%가 동의하며,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5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기여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에는 53.3%가 동의하였다. 가족 내 돌봄 활동에 대한 저평가에 대해서는 61.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람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는 데에는 31.6%가 동의하였으며,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는 26.9%만이 동의하였다.

표 6. 젊은 사람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¹⁾ 정도

(단위: %)

특성	비동의	동의		동의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21.5	1.9	19.6	78.5	61.2	17.3	100.0 (8,000)
2)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45.4	3.8	41.6	54.6	43.9	10.7	100.0 (8,000)
3)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46.7	5.2	41.5	53.3	44.2	9.1	100.0 (8,000)
4) 젊은 사람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부모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받는다	39.0	3.8	35.2	61.0	53.0	8.0	100.0 (8,000)
5)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68.3	17.3	51.0	31.6	28.3	3.3	100.0 (8,000)
6)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73.1	19.4	53.7	26.9	24.8	2.1	100.0 (8,000)

주: 1) 동의는 각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9>.

청년 세대가 겪는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40대 미만의 청년기 응답자는 청년층이 구직, 직장에서의 대우, 사회적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젊은 세대가 구직, 직장 또는 사회적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젊은 층의 이혼, 재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대해서는 젊은 층의 동의 정도가 낮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사람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에 대한 연령차별적 인식 항목을 노인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대한 동의 정도는 87.6%, 직장에서의 성과 대비 낮은 대우는 71.1%,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낮은 인정은 66.4%, 가족 내 돌봄 활동에 대한 저평가는 70.4%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와 비교할 때 구직, 직장 및 사회, 가족에서의 기여나 성과, 활동 대비 낮은 평가 등에서 모두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구직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타 항목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직장에서의 성과 대비 낮은 대우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은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는 데에는 49.9%가 동의하고, 재혼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도 44.3%가

과 대비 낮은 대우는 71.1%,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낮은 인정은 66.4%, 가족 내 돌봄 활동에 대한 저평가는 70.4%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와 비교할 때 구직, 직장 및 사회, 가족에서의 기여나 성과, 활동 대비 낮은 평가 등에서 모두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구직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타 항목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직장에서의 성과 대비 낮은 대우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은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응답자의 연령별 젊은 사람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¹⁾ 정도

(단위: %)

특성 ²⁾	1	2	3	4	5	6
전체	78.5	54.6	53.3	61.0	31.6	26.9
연령						
19~29세	85.0	62.9	60.9	64.2	24.3	22.5
30~39세	79.8	56.6	54.6	62.7	26.6	25.3
40~49세	76.5	54.0	52.9	61.5	28.6	24.8
50~59세	77.9	51.6	50.9	59.2	33.7	27.9
60~69세	74.4	50.6	48.9	59.4	34.8	28.0
70~79세	77.9	51.1	50.9	59.2	43.1	32.5
80세 이상	75.3	52.1	51.3	56.8	49.4	39.0

주: 1) 동의는 각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2) 1~6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2.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3.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4. 젊은 사람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부모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받는다. 5.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6.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20>-<표 6-25> 재구성.

표 8.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¹⁾ 정도

(단위: %)

특성	비동의	동의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청년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²⁾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12.4	0.5	11.9	87.6	68.2	19.4	100.0(8,000)	78.5
2) 노인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29.0	1.2	27.8	71.1	58.7	12.4	100.0(8,000)	54.6
3)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33.7	1.6	32.1	66.4	54.4	12.0	100.0(8,000)	53.3
4) 노인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손자녀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받는다	29.6	2.2	27.4	70.4	60.0	10.4	100.0(8,000)	61.0
5)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50.1	6.8	43.3	49.9	43.1	6.8	100.0(8,000)	31.6
6)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55.6	8.0	47.6	44.3	39.2	5.1	100.0(8,000)	26.9

주: 1) 동의는 각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2) 청년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는 <표 6>의 문항별 '동의(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의 값임.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2>.

동의하고 있어 젊은 세대와 비교할 때 연령에 의
 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인식은 응답자의 연
 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구직, 직장, 사회, 가
 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표 9. 응답자의 연령별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¹⁾ 정도

(단위: %)

특성 ²⁾	1	2	3	4	5	6
전체	87.6	71.1	66.4	70.4	49.9	44.3
연령						
19~29세	84.5	67.8	61.8	68.4	41.8	36.3
30~39세	88.3	67.0	63.0	69.9	44.1	38.8
40~49세	86.7	70.5	64.5	68.9	45.6	41.4
50~59세	88.2	71.7	68.5	71.1	54.5	46.2
60~69세	90.3	76.0	70.2	72.2	53.5	51.5
70~79세	88.4	72.9	71.8	71.5	61.8	51.2
80세 이상	89.0	78.4	69.9	73.9	64.2	62.3

주: 1) 동의는 각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함.

2) 1~6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2. 노인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3.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4. 노인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손자녀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 받는다. 5.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6.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13>-<표 6-18> 재구성

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별 노인 차별에 대한 동의 수준을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성과 대비 낮은 대우,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불인정에 각각 동의하는 응답 중 최저와 최고의 비율이 11.4%포인트, 10.0%포인트의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노인 세대에서 오히려 강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이혼보다는 참고 사는 것이 낫다,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후에서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80대 이후에서는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노인 세대가 가족에 대해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 이혼, 재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타 연

령대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나가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76.0세에서 2018년 82.7세로 약 18년간 6.7세가 증가했으며(통계청, 2020),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길어지는 노년기'를 맞이함을 의미한다. 연령은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생애주기는 노년기 이전을 아동-청년-장년의 3개 또는 아동-청소년-청년-장년의 4개로 구분하고 그 이후를 노년으로 구분하였다. 생애주기별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갖는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설계를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생애주기의 분

류에는 정책 집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의 설정은 생애주기의 특성을 포괄하는 기준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 아동, 청년, 노인의 생애주기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연령기준을 살펴본 결과 아동은 12세, 청년은 35세까지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를 규정하는 명칭이나 사회 제도나 정책 대상자의 기준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이나 정책 집행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수급 대상자 기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의 유교사상은 어른, 고령자에 대한 경로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별로 기대되는 가족, 사회에서의 규범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산업형태의 변화, 다양한 사상의 유입 등으로 인해 연령에 따른 규범은 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분석 결과 여전히 연령에 따른 가족, 사회에서의 역할 규범은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세대(연령)별로 역할 규범에 대한 생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인 20~30대와 노년 세대인 70대 이후에서는 적지 않은 생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현재의 각 세대가 느끼는 연령별 경험의 차이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클 것이며, 현재의 노년 세대가 경험한 청년기는 지금의 청년들이 맞이하는 것과는 매우 상이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들은 이전 세대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년기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특정 연령층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되는 연령차별이 강화될 위험을 갖게 된다.

우리 사회가 2000년대 이후 맞이한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는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을 노인(고령자)으로 정의하는 고령화율은 2065년에는 전체 인구의 46.1%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88.5세로 예측된다(통계청, 2019). 현재의 개인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과 연령대별 연령규범은 향후 변화될 개인과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부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애주기와 사회에서의 역할을 규정짓는 연령 규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또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기대의 연령규범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연령 통합적 사회는 Riley & Riley(2000)가 제시한 연령 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 다양성(Age Heterogeneity)이 실현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령이 사회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는 사회와 다양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정경희 외, 2015).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 정책들을 연령 통합성 관점에서 성찰하는 동시에 연령별로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를 좁이기 위해 연령 다양성 실현의 장을 넓혀야 할 것이다. 罏

참고문헌

- Butler. R. (2005). Ageism: Looking back over my shoulder, *Generations*.
- Iversen, T.N., Larsen, L., & Solem, P.E. (2009). A conceptual analysis of ageism. *Nordic Psychology*, 61(3), pp. 4-22.
- Settersten R.A. (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In: Mortimer J.T., Shanahan M.J.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Handbooks of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Springer, Boston, MA.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1. 2. 10. 발췌
- 권중돈, 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 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pp. 81-106.
- 김이선, 한신갑. (2014). 나이테 다시 그리기: 사회적 역할에 따른 연령구분의 재설정. *한국사회학*, 48(4). 2014, 8. pp. 1-22.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박시내, 박준오, 류광현. (2013).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1)-가족 및 개연의 생애주기 특성 분석.
- 이윤경, 김은정, 변수정,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진화영.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숙, 정세미, 정순돌. (2019). 중고령자의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9(4), pp. 173-203.
- 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김주현, 정순돌. (2015). 연령통합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희, 김경미. (2016).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3), pp. 359~387.
-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임란, 박소현, 정희수. (201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4차(201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김솔이.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Social Perceptions of Age and Age Norms

Lee, Yun 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amines the public's perception of age standards that divide life course into different stages, including childhood, youth and old age,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se standards as used in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also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public consent to age norms in family, workplace, and society, and social aware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youth and the elderly. The findings suggest that people in Korea generally perceive children as persons 12 years of age or younger; youth were perceived as young adults aged 35 or younger; and old age was perceived to start at 70 years of ag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age at which a person is considered a young adult is similar to the definition of youth as used in the Basic Youth Act. Between the public's perception and the Child Welfare Act there was a considerable gap in the age at which a person is no longer considered a child. Various policies in Korea consider people age 65 and older as the elderly. Age norms still existed for such significant life-course transitions as family formation (marriage and childbirth) and career development (job search and promotion), but the norms for the age at which one should assume the role of a senior citizen were relatively weak. In additi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age norms and age discrimination varied across respondents of different age groups. A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and life expectancy increases in the future, further efforts will be required to achieve an age-integrated society that ensures age flexibility and age diversity.